

장 완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의미비유와 합성에 의한 Illustration 표현

- Flower Image를 이용한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김성은

의미비유와 합성에 의한 Illustration 표현

- Flower Image를 이용한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장완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김성은

인 준 서

김성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사회에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우리 생활에서 의사전달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역할을 한다. 단순히 그림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 공간에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대중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정신적 창조적 표현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원시 시대의 동굴벽화로부터 예술의 새로운 조형이념을 다극화시킨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해왔다. 형상의 시각적 특성에 의한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형수단이므로 시각적인 메시지로서 형상에 상응하는 언어적 해독을 함으로써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본질을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이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로 자연적인 요소를 사회적 요소와 부합시켜 비유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연적인 소재인 꽃을 빈번히 사용하게 된다. 꽃은 효과적인 표현 소재로서 인간의 감정을 이끌어 내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발생된 현상에서 찾아 표현하고자 한다.

꽃은 인간에게 무한한 감정을 제공한다. 그 감정은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영향의 형태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경험에 의해 지배받는다. 꽃과 관련된 경험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표현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표현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곁에 있어 쉽게 느끼지 못한 소재를 형태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전달과 동시에 재 기억시킴으로 파지(把持)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전체의 형상 혹은 부분적인 형태를 유사성과 그 형태가 가지는 속성을 일상적 매개체와 접목시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꽃의 형태로 의미 비유와 합성으로 표현하여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표현의 중심이 되는 상징물인 꽃을 시각전달에 있어 흥미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표현방법인 「의미비유와 합성」의 방법으로 함축성과 주목성을 높임으로서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과 의미 비유적 상징에 의한 시각적 충격과 착각을 유도하여 표현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갖도록 하였다.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와 결합시킴으로써,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형태로 무채색과 유채색, 그리고 질감의 대비 등으로 채색하여 나타내었다.

표현방법으로는 배경 및 공간처리는 내용을 증폭시킬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 색상으로 채색하여 나타내었다. 캔버스 보드에 아크릴 칼라로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채택하여 채색하였다.

이러한 표현기법으로 의미비유와 합성 표현을 위주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여 현대사회에서 사물이 가지는 고유한 이미지를 벗어나 새롭게 전환된 감정의 계기를 유도하면서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II.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에 있어서 의미비유와 합성	4
1. 의미 비유와 합성의 분석	4
2. 의미 비유와 합성의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효과	6
3. 비주얼 스캔들 (Visual Scandal)과 의미비유	9
III. 현대사회 현상과 은유적 표현	13
1. 현대사회 현상의 시대적 특성	13
2. 일상적 사물의 은유적 표현소재	15
3. 플라워 이미지 (Flower Image)의 상징적 의미	17
IV. 작품제작 및 분석	20
1. 작품제작의도	20
2. 작품내용과 분석	22
V. 결론	40

참고문헌

참고도판

Abstract

작품 목차

1. <작품1>.....	23
2. <작품2>.....	25
3. <작품3>.....	27
4. <작품4>.....	29
5. <작품5>.....	31
6. <작품6>.....	33
7. <작품7>.....	35
8. <작품8>.....	37
9. <작품9>.....	39

I. 서론

1. 연구목적

인간은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비유를 하게 된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을 이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은유적 표현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여 자연적 소재, 꽃과 같은 소재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때 쓰인다. 꽃이 가지는 아름다움, 화려함, 번영, 영화로움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그 이미지를 상상하고 오래 접함으로써 그 감각을 오래 지속하게 한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으나 지각을 통해 선택한다.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금만 느낀다거나, 혹은 아예 외면하기도 하듯이, 그 감각을 자신이 선택하게 된다.

식물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창조하는, 경이로운 생명 현상을 영위함으로써 무생물과 생물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소재로서 사회적인 사물과 접목시켜 확실한 대비를 주어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묘사에 있어서는 정밀함으로 표현하고 공간감을 준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목적미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 중 두개의 사물이나 사상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면서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시각적 주목성을 돕는 주의 집중효과와 기억도를 높이는 파지(把持)효과를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시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법은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을 더욱 깊게 집중시키고 표현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¹⁾

일러스트레이션은 현대사회를 적절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시각언어로서 문화와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의미 비유 상징은 사물이나 현상을 유사하거나 상대 비교하는 것을 빌어 표현하는 비유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사물에 대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비유적 방법으로 우리가 느끼는 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고자 한다. 꽃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꽃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형태의 유사성을 이용해 사회에서 보여 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무시해 버리는 요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플라워 이미지(flower image)의 서정적이며 긍정적인 표현을 복잡하고 비도덕적인 현대사회의 부정적 이미지에 비유시킴으로써, 목적미술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기능을 사회 순화적 기능으로 연계하여 시각적 충족을 이루게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시각적 충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표현방법으로 의미 비유적 합성이라는 것을 사용하였다.

1) 장완영. " '의미 비유적 상징'에 의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집중"
『일러스트레이션학회 학술지 (vol4)』.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002. 6,
p211

2. 연구범위 및 방법

엉뚱한 발상과 비상식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의 의표(意表)를 찢러 강한 의식을 남기는 수법의 비주얼 스캔들은 그것을 보는 이에게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이 충격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의미를 주어 그 의미를 좀더 우리에게 다가가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의미비유합성이 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2장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여지는 의미비유와 합성에 대해 논하고, 그에 따른 일러스트레이션 효과,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과 의미 비유에 대해 살펴보고 의미 비유 합성의 현대사회적 의미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3장의 사회 현상과 시대적 특징의 은유적 표현에서는 꽃의 상징적 의미와 그에 따른 꽃 형태의 의미, 즉 형태에서 보여 지는 유사성을 이용한 표현을 논하고, 그에 따른 일상적 사물의 비유적 요소의 효과와 현대 사회에서 보여 지는 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4장에서는 작품제작의 표현방법에 있어 기법과 재료의 사용을 살펴보고, 작품분석을 통해 앞에서 논의한 시각적 표현을 강화(reinforcement)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캔버스보드에 채도가 낮은 색을 배경으로 채색하여 전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부분적으로 거친 터치(a coarse touch)와 세밀한 묘사(a detailed touch)를 이용해 서로 다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칼라는 무채색을 이용해 사회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유채색을 이용해 긍정적 이미지인 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의미 비유적 합성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법을 연구하면서 현대사회의 복잡한 것을 시각적으로 순화시켜 표현하는 기법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에 있어서 의미비유와 합성

1. 의미 비유와 합성의 분석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비유법은 그 언어의 사용을 돋보이게 한다. 비유는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거나 그 표현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은유법과 직유법이 있다.

비유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를 원관념이라 하고, 원관념에 비유되는 것을 보조관념이라 한다. 비유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표현 대상과 대상에 비겨보는 대상 사이의 유추(類推)의 발견이 필요하다.

비유법에서는 특히 개성적인 유추가 생명인데 이 유추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의미를 비유함에 있어서 인간의 생활에서 체험한 것이 밑바탕이 되어 표현되어 지는 것이다.

인간 생활 전반에서 인간들은 그 때의 심경에 따라서 대상 자체만을 의식하지 않고, 무엇인가의 ‘비유’를 창출해내어 감동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인간의 대뇌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상징’이나 ‘비유’가 그 영역을 통과하기 위한 패스포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영역이 외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말 이전의 말, 말보다 오래된 말이 필요한 것이다. 그 오래된 말이야말로 ‘상징’이며, ‘비유’ 다

2) 사물이나 현상을 유사하거나 또는 상대 비교하는 것을 빌어 표현하는 비유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표현이상으로 그 특성의 일면을 선명하게 부조하여

2) 山田理英, 『일러스트레이션과 이미지 전략』. 김충기(역). 서울: 나남
신서 097, 1991, p99.

재미있고, 불가사의하게 인상짓는 것이다.

예술로서의 상징 문제는 일종의 절대적 이미지 즉, 직접적 자각, 정서, 생명력, 우리가 살고 느끼는 인격적 자기 동일성, 정신성의 모태 등의 개념³⁾과 연결되어 회화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로 중요한 조형수단이 된다.

상징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생각이 상징적 변형이다. 상징과 상징되는 것 사이에 유사성을 추구하되 이 유사성은 일종의 동형구조를 갖는 그런 유사성이다. 상징의 기능은 지각된 경험을 명료화시킨 결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능으로서 말하자면 관념과 개념을 소통시키는 기능인데 이는 곧 상징의 창조기능 - ‘도구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상징은 언제나 관념(an idea)의 ‘투영’이다. 경험과 어떠한 성분들이 그와 다른 경험의 성분들에 걸 맞는 의식, 신념, 정서, 어법 등을 이끌어 낼 때 이 때 인간의 마음은 상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성분들은 ‘상징’이고 후자의 성분들은 상징의 ‘의미’이다.

상징으로부터 의미에로의 전이가 이루어질 때의 유기적 기능을 ‘상징적 지시 관계(symbolic reference)라 한다.⁴⁾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상징적인 지시 관계에 놓일 때 가장 적절한 상징 표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형상에 의해 상징 표현할 수 있는데 형상이란 우리가 지각하는 어떤 것, 의무를 가지는 어떤 것, 대상 안에서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표현함에 있어서 형태, 색채, 공

3) Susanna.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역). 서울: 고려원, 1983, p120.

4) Yevgeny Basin. 『20세기 예술철학사조』. 오병안 · 윤자성 옮김. 서울: 경문사, 1989, p155,156.

5) E.B 펠트만. 『미술의 구조적 이해』. 김춘일(역). 서울: 열화당, 1979, p28.

간, 규모, 비례 등으로 나타내는데 이중 형태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합성할 수가 있다.

합성(合成)이란 두 가지 이상이 합하여 한 가지 상태를 이루는 말⁶⁾로서 둘 이상의 물체와 물체의 결합, 물질과 물질, 그리고 복합어의 갈래인 실질 형태소가 합쳐진 의미이다.

이는 언어적인 기능만 아니라 생활전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상징표현을 포함하면서 단순히 물체를 비유만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에 관한 지각은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 형을 결합함으로써 항상 고정적으로 인지되어 있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 할 수 있다.

2. 의미 비유와 합성의 Illustration 효과

우리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비유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모습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으로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 표현하게 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의미 비유적 상징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유사하거나 상대 비교하는 것을 빌어 비유적인 방법을 직접적인 표현 이상으로 그 특성을 선명하게 부조하여 재미있고, 특유의 웃음을 지어낼 수 있게 한다. 그 만큼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에 있어서는 사물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사상(事象)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비유

6) 민중서림 편집국.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제5권. 서울: 민중서림, 2001, p2755.

적 표현이나 은유적 표현보다 감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인간의 시각이 늘 보고 느껴왔던 일들보다는 우연 발생적이거나 비정형적인 일들에(圖 1,2) 대하여 시각기능의 동공(瞳孔)변화와 함께 기억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의미의 비유적 상징의 방법으로서 ‘비인간적인 것을 인격화하거나(圖 3,4)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이나 교훈을 동물로 나타내어 의인적(擬人的), 또는 우의적(寓意的)방법(圖 5,6)도 이 종류에 속한다.

의미 비유적 방법의 표현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언어이며, 대중의 반응이 가장 민감한 현대의 회화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삽화, 도해(圖解), 신문이나 잡지, 광고의 문장이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되는 그림으로서 대중의 이해를 위해 텍스트와 함께 출판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이기도 하다. 또는 어떤 특정한 용도를 위해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그림을 말한다.⁷⁾

디자인이나 사진에 의해 사실적, 상징적, 만화적, 도표적 등 각종의 표현형식을 취하며, 색채에 의한 강조 등 광범한 표현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사고하고 상상하는 것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전달하려 할 때 가장 타당한 수단이 된다.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의미 비유적 상징을 찾을 수 있는데, 사회문제를 주제로 하거나, 정보의 전달의 형태, 오락적 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에서도 소비자의 주의 집중 효과와 광고의 기억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圖 7). (圖 8)에서는 연필 깎은 형태를 일본의 유명 화산인 후지산

7) 월간미술연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1999, p382.

에 비유하여 자사의 기업광고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작은 크기의 연필을 거대한 후지산에 비유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의표를 찌르고 있으며 상상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⁸⁾

또한, (圖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멜론의 껍이 그물처럼 갈라져 있는 모습을 도시의 도로나 길에서 형태의 공통점을 이용하여 비유를 하는 동시에 합성의 의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동화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준다. 여기에서 크기가 전혀 다른 멜론과 도시의 길을 비유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유머를 가져다준다.

이와 같이 일러스트레이션이 목적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보는 수용자의 변화를 바꾸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효과는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의미만 부여하여 비유를 하게 된다면 시각적인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일러스트레이션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량 복제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조형을 통하여 사고를 넘어선 사고와의 결합으로 어떤 개념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식별력과 독자성이 결합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임으로, 사회성과 대중성을 가지고 사회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조형적 표현과 개성적인 표현이 존재하므로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이미지나 의미를 사고하기 전에 직감적으로 전하는 현대 사회의 살아있는 언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한 작품은 그 안에 이미 전체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보는 사람이 주제를 알기도 전에 그 의미를 보는 사람에게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⁹⁾ 일러스트레이터가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표현되었을 때 그 작품은 가치가 되고 수용자

8) 장완영, 위의 글 p213, 215.

9) J.I 페리에. 『20세기 미술』. 김정화(역). 에이피인터내셔널, 1990, p83.

들에게도 그 시각물이 자신의 경험, 기억, 감성을 자극하는 매개체가 되어 연상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직관, 상상력으로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 더욱 가치가 있게 된다.

자신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사용하여 표현방법으로서 직접적으로 비유답게 보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은유, 비인격적인 것을 인격화 시키거나 또는 의인적(擬人的)(圖 10), 우의적(寓意的)(圖 11)등이 있다. 이것은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에서 의미 비유적 상징과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합성은 하나의 소재와 또 다른 소재 두개 이상이 모여서 표현되는데 이는 단순히 같은 소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소재간의 반대적인 요소, 즉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처럼 대조되는 소재를 합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전혀 서로 동일하게 보여지지 않았던 이질감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경험은 지금까지 못해보거나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표현해내며, 그 감정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삶의 위트를 주어 공감과 이해를 유도해 낼 수 있다.

3.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과 의미비유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이란 1950년 프랑스의 사비낙(Raymond Savinac)이 주장한 시각전달(視覺傳達)을 위한 아이디어의 표현 수단이다. 서로 유리(遊離)된 두 개의 이미지의 연합에서 출발하여 그것들을 어느 요소로 결합하고 그 시각적 충격(visual scandal)이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에 의해 여러 사람의 의식내부에 강하게 작용시키려는 수법을 말한다. 10)

10) 이재운, 『미술사전』. 한국미술연감사, 1989.

영똥한 발상과 비상식적인 표현(圖 12)으로 사람들의 의표(意表)를 찢러 강한 의식을 남기는 수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데페이즈망(depaysment)표현과 유사하다.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데페이즈망(depaysment)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하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물건이 있는 표현을 말한다. 11)

낮익은 물체라도 그것이 놓여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 내어져 이처럼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이면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 12) 따라서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했으며 실제로 이런 방법은 예술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圖 13,14,15,16)

데페이즈망(depaysment)과 비주얼 스캔들의 유사한 표현방법은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다만 초현실주의자들은 개인적인 이미지들을 창조하여 커뮤니케이션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비주얼 스캔들의 경우 사고적 준거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이미지들을 제시해왔다.

샤비낙의 비주얼 스캔들 표현은 사물이나 상품을 의인화 시킨 것이 많고 그 위치를 전도시켜 인간과 대등하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해학의 요소를 부여하여 독창적이고 간결하게 수법을 만들어 내는 선명한 스타일과 분방한 유머가 많은 사람의 상식에 충격을 주었고, 화면으로부터 튀어나와 강한 인상을 남겼고 정확한 소구 포인트를 시각화 했다. (圖 17,18)

비주얼 스캔들 표현은 어휘가 시사하듯 시각적 충격, 시각적 착각을 의미한다.

어떠한 틀에서 벗어나 감각, 상징, 환상 등을 통해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영똥한 두 가지의 상황을 접목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적인 영상을 재현

11) 김행숙편찬. 『디자인의 용어해설』. 디딤출판사. 1989, p94.

12) 월간미술연음, 위의 글, p89.

하는데, 바로 이러한 표현기법을 위주로 하여 즉각적이고, 단발적인 시각적 의미를 묘사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묘사의 기능과 해석의 기능을 결합한 시각적 표현의 한 방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질적인 이미지나 사물의 결합에 의한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은 그 발상 자체가 형태의 항상성을 무시하는 창조적 형태표현의 방법이 되며, 시각적인 충격은 시선유도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¹³⁾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표현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시각적인 충격, 착각을 창조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여 주목하게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유머나 기발한 착상으로 얻어지는 정서적 환기를 부가하며, 복합적으로 결합된 모순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완시키려는 내분을 유도, 일상에서 느끼기 어려운 부조합 등이 심리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입을 용이하게 하며 기억에 오래 남게 한다.

무엇보다 주목효과가 가장 중요한데 주목성을 끄는 요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달려있다. 여기서 메시지란 “커뮤니케이터가 수용자로부터 의도한 반응, 즉, 효과를 얻기 위한 자극으로 사용되는 기호 또는 기호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에 있다.¹⁴⁾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 표현이 일러스트레이션의 주된 사용 방법으로 활용될 때 그것은 강하고, 이상적인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현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려면 주목성을 가져야하고 독창적인 기법과 내용, 다른 메시지와의 차별화로 주의 집중을 높여야한다.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은 은유적 표현과 관계가 있는 표현으로

13) 명광주. “시각디자인에 있어서 비주얼 스캔들 표현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21.

14) 박선의 · 최호천 지음.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울: 미진사, 1989, p92~131.

서로 유리된 두 개의 이미지 연합에서 출발하여 어느 요소로 결합하고 그 시각적 충격에 의해 여러 사람의 의식내부에 강하게 작용시키려는 수법을 말한다.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지니고 있는 생각들에 비해서 엉뚱하고 비정형적인 표현을 함으로 시각적 주목성을 갖게 하고, 감정을 일으킨다. (圖 19,20)

의미 비유적 표현 또한 두 가지 사물이 가지는 공통의 의미를 비유함에 따라 얻는데,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은 어떠한 형태이든 시각적 스캔들을 통하여 감정을 자극하는 점에서 의미 비유적 표현을 포괄하고 있다.

Ⅲ. 현대사회 현상과 은유적 표현

1. 현대사회 현상의 시대적 특성

제3물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명은 고도의 과학기술로 지탱되고 있는 동시에, 반 산업주의라는 성격을 지니면서 새로운 각양각색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전혀 새로운 생활양식을 가져오게 된다.

핵가족과 다른 새로운 가족 형태, 일렉트로닉 주택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직업과 주택의 일치 생활들이 나타나고, 규격화와 동시화, 중앙집권화라는 산업 사회의 제약을 뛰어넘어 에너지와 부, 권력의 집중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는 정보화 사회로서 거미줄 같은 넷 망으로 연결된 전 세계가 정보를 주고 받는 사회에서 인간이 전 시대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던 생활의 편의를 누리게 되었다.

이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핵심이 되는 사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체제는 바로 이 초기호적인 데이터와 정보, 지식의 교환에 의존하게 되고 지식의 교환 없이는 새로운 부가 창출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데이터(자료)를 개별적인 사실로 보고, 정보는 범주와 분류 체계 또는 그 밖의 양식들에 맞는 자료이며, 지식은 보다 일반적으로 엄밀하고 다듬어 놓은 정보라고 하였다. 또 지식은 참이건 거짓이건 개략적이건 포괄적이건 상관없이 태도나 가치관 등 사회적 상징물은 물론 정보와 데이터, 상징과 표상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살균되어 있지도 권력 중립적이지도 않은 모든 지식과 통신 체제는 직장생활과 정치생활,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사실(fact)은 모두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아니하건

간에 기존의 권력구조가 형성해 놓은 다른 사실들과 가설 등에서 유래한 것이며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

현대 사회는 단순히 한단어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경지를 넘어서서 새로운 다량의 정보들의 등장과, 변화 속도의 가속, 정보의 복잡화로 기존의 업무 단위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관료주의 체제와는 다른 여러 조직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족의 특성을 조직에 부여하여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 직책, 형식 절차의 파괴, 융통성 증가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으나,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켜 계산해 버리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현대인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물질 욕에 사로 잡혀 재화를 소비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조각난 기억의 조각처럼 파편화되어 순간순간 헛된 욕망을 좇으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거대한 사회의 소모품으로 살아가고 있다. 생활은 편해졌지만 인간은 점점 더 가장 불안하고 외로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은 갈수록 무디어져 주변의 보여 지는 사물과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도시는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인간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하나의 실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아무리 큰 도시, 복잡한 도시 일지라도 인간이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로서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도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우리에게 편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감정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표현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사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2. 일상적 사물의 은유적 표현소재

인간이 생활 전반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호에는 의미가 있고, 또 인간은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모든 대상은 주관적으로 해석된 의미, 부여된 뜻을 지니고 있다. 즉, 모든 것에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대상과 의미를 주고받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회적 행위, 즉 인간관계적 행위라고 한다면 결국 인간의 행위란 상징(의미)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다양한 사회장면 속에서 개체의 반응(사회행동 또는 그것의 심리과정)을 분석해볼 때 사회행동을 결정짓는 요인들로서 유전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과거 경험, 현재의 사회장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회행동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이나, 개인의 차이, 또는 학문의 결과 등에서 찾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작용하는 요인들에서 찾고자 한다. 사회자극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그 사회자극이 실제 무엇으로 지각 또는 해석되었느냐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일상적(ordinary)인 것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늘 예사로운 것을 뜻한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사물과 접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존재를 하찮게 여기면서 무시하게 된다. 이러한 존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은유라는 말은 희랍어 metaphora에서 온 것이다. ‘너머로’라는 의미의 meta와 ;가져가다 ‘라는 의미의 pheria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은유는 한 사물의 양상이 다른 한 사물의 양상으로’ 넘겨 가져가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¹⁵⁾으로 표현하고자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겨서 표현하는

15)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10권』. 서울: 동아출판사, 1993, p673.

비유법의 하나이다. 어떤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또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원리이다. 이것은 비 추론적이며, 어떤 관념을 확인시켜 주지는 않는다.

은유적 표현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주는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기도 하여 우리의 언어생활을 통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관념들 속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맺어진 일이 없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 결합시켜서 상호작용을 일으켜 신선한 생명감을 불어넣게 된다.

이러한 표현을 여러 가지의 소재 중 일상적인 사물에 대입함으로써 다른 소재보다도 그 사물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여겨진 것들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일상소재로서 자연적인 요소를 사회적인 요소와 접목시켜 확실한 대비를 주면서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圖 21)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표현에 따른 감정을 오래 지속되게 할 수 있다.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고유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에 정신적인 즐거움을 동반하여 효과적인 이해와 설득을 가능하게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게 하며 점점 획일화·비개성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가 된다.

3. 플라워 이미지(Flower Image)의 상징적 의미

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사랑과 찬사를 받아온 자연물 중의 하나이다. 종류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모든 꽃은 아름다운 색과 자태, 그윽한 향기로 인하여 그 존재의 신비스러움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고 윤택하게 만들어 왔다.

자연 속에 만발한 꽃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숭배하는 대상에게 바치거나 가까이 두고 보려는 마음에서 꽃을 꺾어 꽃는 적극적인 행위로 발전해¹⁶⁾, 만인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 전반에 걸쳐 직접·간접적으로 즐겨 애용되었다. 숭배, 존경, 사랑, 친애의 표시로 전달되는 매개물로서부터 각종 생활도구와 공예품 등에 길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시문(施文)되었고, 미술, 음악, 문학작품 등에 가장 즐겨 등장하는 소재 중의 하나로 애용되었다.

꽃을 주제로 하는 그림은 절대적 미의 대상인 자연을 소재로 하여 인간이 그 자연의 조형을 모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즉 꽃의 소재가 되는 식물은 이미 모양이 갖춰진 자연물이 된다.

이것을 인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형능력을 발휘하여 재현, 창작하는 것이다.

꽃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계절의 변화를 아는 기준이며 인생의 최성기(最盛期)를 의미한다. 주로 아름다움, 화려함, 번영, 영화로움 등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름다운 여자나 기쁜 일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꽃은 본질적으로 일시성, 봄,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에게 어사화(御賜花)를 내려 영화로움을 상징하기도 했다. 오랜 옛날부터 구애(求愛)·숭배·존경·친애의 표시, 위문·축하의 마음 등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즐겨 꽃이 선택되었고, 가장행렬에서도 상여를 꽃으로 장식하여 저승길의 안녕과 극락왕생을 빌었

16)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2000, p91, 92.

다.¹⁷⁾

또한 서양의 경우, 고대에는 신의 축복을 얻는 수단으로 화관(花冠)이나 화환(花環)을 몸에 지녔으며, 신이 사는 곳이 화원이라고 생각하였다. 꽃은 신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도 오랜 관계를 가져 특히 도시나 국가, 왕가(王家)나 영웅의 표장(標章;emblem)으로 사용되었다.

꽃을 형태로 나누어 보는 관점은 꽃은 중심의 이미지이며, 영원의 원형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일례로 연꽃(Lotus)은 이집트에서 초기의 생명, 혹은 최초로 나타나는 현상을 상징하며, 중세에는 신비한 “중심”, 따라서 심장과 동일시되었다.

신화나 종교에서의 꽃은 모든 예술적 비유, 상징이 되어 나타나는데 기독교에서의 백합, 꽃은 순결을 뜻하므로, 수태고지에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이 가진 백합꽃은 마리아를 의미하며, 성모 마리아 옆에는 대개 백합꽃이 놓여 있다.

백합이 순결을 뜻하는 것은 색깔이 희기 때문인데, 서양에서는 흰색이 때묻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정의의 의인상(공평을 뜻하는 저울과 힘의 상징인 칼을 갖고 있다. 흔히 대법원의 상징으로 쓰인다.) 역시 흰색의 옷을 입은 여인으로 묘사된다.¹⁸⁾

불교에서의 연꽃은 자태와 특성으로 불교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圖 22)을 함축하고 있으며, 연꽃을 통하여 불법을 펼치기도 한다. 부처님의 세계를 묘사한 각종 건축물과 조각품은 더 없이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경배와 경외심외에도 깨달음의 세계, 진리를 깨우친 것의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번뇌가 없는 모습을 나타낸다. 활짝 핀 연꽃은 우주 자체를 나타내며, 즐기는 그 축을 상징하고 영원히 지지 않는

17) 구미래, 위의 글. p92

18) 오승희. “꽃의 형상을 통한 자아의 내면 표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9.

공덕을 의미한다.

또 신화에서의 꽃은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암시하고 등장하는데, 신을 사랑한 요정 크리티¹⁹⁾의 순정을 알리는 꽃(해바라기), 사람의 피로 태어난 히야신스와 아네모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 요정의 사랑을 무시한 징별로 피어난 꽃(수선화), 나르시스를 사랑하여 그가 죽자 따라 죽은 요정의 순정을 태어난 꽃(후리지아), 둘을 동시에 사랑하는 아픔으로 피어난 테이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꽃은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의 순화(純化)를 느끼게 하며, 시각적으로 감성을 자극하여 풍부하게 해준다.

꽃을 형태적으로 보면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같은 것이 없으며, 꽃잎의 선 자체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모양을 가져 관능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인공적인 요소와 비교하여 볼 수 있는데, 인공적인 것은 기하학적인 조화로써 본질적으로 자연적인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 자연적인 조화야말로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연의 본질이면서 인간을 자연처럼 이끌어준다. 인간의 꽃에 대한 애정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교량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나타난 꽃의 형태는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추구하는 것을 느낌으로써 감정적 충만을 유도하면서 사회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물체에 대한 감정도 바꿀 수 있는데 취지가 있다.

19) 크리티는 물의 요정으로 태양의 신, 아폴론을 사모하여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아폴론에게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다가 말라서 다리는 뿌리로 변해서 땅 속 깊이 박혀 버렸고 몸은 녹색 줄기가 되고 귀여운 얼굴은 커다란 꽃, 해바라기로 변했습니다.

IV. 작품제작 및 분석

1. 작품제작의도

현대사회에는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곁에 있어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하찮은 존재로 무감각해지는 모습들이 사회에 팽배해있다.

항상 보고 느끼면서 즐거움과 향기를 주는 아름다운 꽃의 형태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문명의 형태들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보다 연관적인 은유를 통해 의미비유표현을 하였다. 그를 은유하여 인간생활의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주변의 사물들을 한 번 더 둘러 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주제가 되는 꽃들은 인간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시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또한 감정적으로 충만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감정의 충족감과 긍정적 효과를 통해 인간생활의 안정감을 유도하여 인간중심의 사회의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소소한 요소를 되 돌이켜 보고자한다.

위와 같은 표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아크릴 감을 선택하였다.

아크릴 물감은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미술가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실용적인 재료중의 하나로, 이것의 장점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유화물감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와 친화력이 강해 함께 사용하면 여러 효과를 낼 수가 있으며, 건조도 빠르다. 또한, 부착력, 내식성(耐蝕性)이 뛰어나다. 캔버스에 직접 스며드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캔버스나 나무 보드 등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유화처럼

수정이 용이하다. 또한 색조의 변화 없이 불감의 양을 늘려 주거나, 붓의 터치감을 나타내거나, 투명하게 여러 효과를 줄 수 있다. 꼭 붓을 사용하지 않고 나이프나, 손가락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질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작방법으로는 종이는 캔버스를 사용하였고, 의미 비유와 합성을 빠르고 잘 전달하기 위한 기법으로 아크릴 칼라를 채택하였다. 색상은 주제와 배경의 명도, 채도 차이를 주어 전달내용을 증폭시킬 수 있게 하였다. 무채색을 이용해 사회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유채색을 이용해 긍정적 이미지인 꽃을 표현하고자 한다. 소재의 거친 터치와 세밀한 묘사로 표현해서 주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작품내용과 분석

[작 품 1]

현대사회에서 과도하게 밀집되어 생겨난 빌딩들은 인간의 정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대상으로 긍정적인 시각자체로 비추기 위해 일상적 소재인 꽃, 해바라기 모습을 표현하였다.

빌딩은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서, 존재감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이 소재는 부정적인 요소로 도시가 더욱 삭막해지고 더욱 소홀해지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것을 채택하여 사회적으로 주위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도시의 모습을 심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해바라기는 형태적으로 원반 모양의 꽃받침에 작은 꽃들을 뺨뺨이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둘레로 큰 꽃잎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은 도시와 그 도시 외곽을 감싸고 있는 시골과 유사하다. 잔디 길은 그 도시간의 연결을 의미하며, 유리 돛처럼 보이는 이슬은 도시가 그들 자체로서 차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투명하더라도 벽은 존재한다. 도시에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두려하지 않고 무시하려한다. 그러한 모습을 좀더 부각시키면서 해바라기,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시켰다.

제작방법으로는 배경을 아크릴칼라를 사용하여 저채도로 표현하고 긍정적인 요소인 해바라기를 정밀한 터치로 주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와 반대로 건물들은 단순화 시켜 그레이 톤(gray tone)으로 대조시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

[작 품 2]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 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민들레는 길가의 도로나 산이나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 그냥 보고 지나쳐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단면으로 보여준 것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일수록 그 가치성을 떨어진다.

그림을 그리거나 벽을 칠하는 순간에는 붓은 중요한 존재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그것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어디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잊혀져 간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중요한 물건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된다.

이 소재의 붓²⁰⁾ 부분은 민들레의 꽃잎과도 형태적으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붓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존재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배경을 저채도로 하여 물체를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붓의 거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붓대에 질감을 주었다. 붓이 지나간 자국이면서 꽃에게 빛이 비춘다는 의미로서의 그라데이션(gradation) 표현을 하였다. 민들레의 잎은 거의 배경과 비슷한 톤으로 채색하여 붓의 형태와 민들레의 꽃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20) 붓의 끝부분으로 털로 이루어진 부분.



[작품2]

[작 품 3]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트나 공장들과 같은 건물 모습, 항상 같이 볼 수 있는 굴뚝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높이는 더욱 더 높아져왔다. 바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한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더욱이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로서 사람들은 더 멀리한다.

카라는 관상용으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특징은 꽃줄기는 곧추서고 잎보다 길며 끝에 1개의 꽃차례가 달린다. 다른 꽃들과 달리 꽃잎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꽃자루 끝에 꽃잎모양으로 착색된 불염포(佛焰苞)²¹⁾로 둘러 싸여있다. 곧게 뻗는 꽃대와 꽃의 안쪽이 비어 있어서 곧게 뻗는 형태가 굴뚝의 모습과 유사하다. 주변의 건물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단순화 시켜 표현하였다.

제작 방법으로 배경을 아크릴칼라로 바탕을 그라데이션(gradation)으로 단순함으로 피하고자 하였고, 복잡한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건물 전체가 아닌 부분을 텍스처를 주었다. 긍정적인 요소, 꽃은 정밀 묘사로 주목성과 사실감을 주고자 하였다.

21) 불염포 [佛焰苞, spathe] 육수꽃차례를 둘러싸는 포가 변형된 큰 꽃턱잎. 넓은 잎 모양의 포로 생김새와 빛깔, 크기 등은 속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작품 3]

[작 품 4]

현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사물에 대한 귀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온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산을 찾는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체이며,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막상 필요시에만 찾는 이 우산은 주위에서 얻기 쉬우며, 사용하기도 쉽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존재이다.

백합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끗함으로 시각적 충족감을 주는데 고도화된 사회생활을 한 인간들일수록 무의식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백합을 주위에 두고 아름다운 모습이 인위적이지 않는 이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백합, 전체적인 형태는 우산의 접은 모습의 라인과 비슷하다. 백합의 암술을 우산의 손잡이로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제작방법으로 배경은 자연의 칼라인 그린 톤(green tone) 으로 채색하였고, 우산의 뼈대의대는 무채색으로 손잡이는 유채색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4]

[작 품 5]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나팔꽃은 주위의 물체를 감아 올라가는데 항상 위를 향해 자란다. 이 형상은 나선형으로 코르크 스크류의 형태와 유사하다. 이 스크류는 와인을 마실 때에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와인을 열려는 경우 코르크는 부서져서 와인에 섞여 마실 수가 없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항상 이것을 지니고 다니지 않는다. 이 인공물을 자연물인 나팔꽃과 결합시켜 표현하였다.

제작방법으로 배경은 꽃과 코르크가 가지는 유사한 칼라를 채색하여, 나팔꽃을 주목시키고자 하였다.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가 만나는 스크류 부분은 그라데이션(gradation)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5]

[작 품 6]

관상용인 장미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가질 수 있다.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가진 만큼 가시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울수록 가시가 있다는 말로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부정적인 요소는 그 꽃의 가치를 더 해 주는 것 같다.

음료수의 빨대는 없어도 되는 존재로서 장미 줄기의 가시 또한 필요성에 대해 의문성을 갖게 한다. 빨대가 없다고 우리는 음료수를 마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이유는 좀 더 깔끔함을 위해 사용한다. 장미의 가시가 있는 줄기도 꽃을 보호하기에 생긴 것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

빨대는 꽃줄기가 하는 역할과 같다.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과 같으며, 형태 또한 유사하다. 빨대가 꺾어져 있는 것은 꽃의 만개하여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동시에 시들어 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물 컵에 물의 양 또한 변화를 주어 줄기인 빨대의 역할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으로 배경은 blue에서 red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그라데이션(gradation)으로 나타내었고 물을 빨아들여 꽃이 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물 컵과 장미는 정밀하게 표현하고, 주목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6]

[작 품 7]

한여름에 피는 무궁화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요즘은 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 꽃은 다른 꽃들과 달리 겹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술과 암술이 꽃잎으로 변한 것으로 암술이 변한 정도에 따라 다양하면서 모양이 원추형을 가진다.

이 모습은 탐이 가지는 전체적인 모습과 유사하게 보이는데, 탐도 원추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국화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탐인 다보탐과 석가탐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이 두 탐은 우리에게 문화적 유산이지만 점점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유산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하였다.

제작방법으로 배경은 red에서 blue로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사용해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겹꽃, 꽃의 중심 부분을 탐의 형태로 텍스처를 주어 표현하였다. 탐을 단순화시켜 표현하면서 꽃은 정밀한 표현을 하여 대비를 하였다.



[작품 7]

[작 품 8]

현대사회, 길 가 어느 곳에서 보이는 담배꽁초,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볼 수 있는 재떨이의 안에 담배, 성냥, 그리고 휴지등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부정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담배는 불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막상 피려는 순간이 아니면 그 불의 존재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 이렇듯 불을 사용하기에는 성냥 또는 라이터가 필요하다. 성냥이 타들어가는 모습이 튕립이 시들어 가는 상태와 상징적으로 유사성을 접목하여 표현하였다. 인공물인 재떨이와 담배는 거친 터치를 이용해 표현하였고, 튕립은 정밀하게 묘사하였다.

제작방법으로 배경은 무채색 톤으로 재떨이와 담배와 비슷한 톤으로 사용하였고, 튕립은 고채도의 칼라를 써서 강조를 하였다.



[작품 8]

[작 품 9]

잔잔한 연못에서 볼 수 있는 연꽃은 흙탕물에서 나오는 데 그 꽃의 이미지는 깨끗함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꽃과 함께 볼 수 있는 연잎은 원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못 표면에 떠있다. 그 연잎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저장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CD의 형태와 유사하다. CD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됨으로서 그 가치성과 희소성이 떨어져갔다. 그것의 형태적 유사성을 연꽃이 가지는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서 일상적 매개체와 꽃이 지니고 있는 속성과의 접목으로 내용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제작방법으로 배경은 green에서 blue톤으로 변화를 주어 단순함을 피했으며, 연못의 물의 깨끗함을 주기 위해 blue톤을 사용했다. 사회적 요소를 꽃잎이 반사된 색감을 넣어 그 물체의 사실감을 주었다. 긍정적인 요소, 꽃은 정밀 묘사로 주목성과 사실감을 주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도하였다.



[작품 9]

V. 결론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은 생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시각적 언어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오늘날 일러스트레이션은 분명한 컨셉트를 가진 목표지향적인 시각언어로써 독자적인 장르를 구축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수용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암시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고 강하게 표현할 방법으로 비주얼 스캔들을 제시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함에 있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의미비유와 합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제작함에 있어 사물이 가지는 고유한 형태를 통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자연적 소재인 꽃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삶의 위트와 공감을 주고자 하였다.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법에 있어 의미 비유적 표현은 두 가지 사물이 가지는 공통의 의미를 비유함에 따라 얻는데,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은 어떠한 형태이든 시각적 스캔들을 통하여 감정을 자극하는 점에서 의미 비유적 표현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주얼 스캔들 표현은 두 가지 이상의 유리된 사물이나 상황을 결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충격, 착각을 유도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는 모순과 착시에 있는 반면에 의미 비유적 표현은 형태의 유사성과 사물이 상징하는 속성을 중심으로 접목시켜 연상성에 의한 기억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가능하다.

또한 의미 비유적 표현을 형태적 유사성으로 합성하여 비현실적이면서 비논리적인 물체를 결합시켜 표현함으로써 고정적인 관념에 혼란을 주어 시각적 주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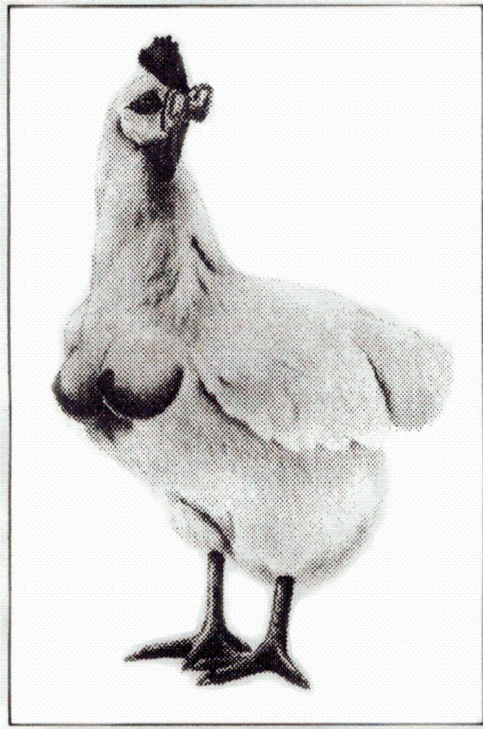
꽃을 매개체로 상징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지는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인 효과로 변환시킴으로써 목적미술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작품제작을 통하여 일상적인 사물이 가지는 감정이 꽃과 접하게 되면서 그것은 단순히 그 사물로만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외성을 나타내어 전달내용을 인상적으로 창출할 수 있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

표현기법에 있어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아크릴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기법을 표현하였다. 부분적인 사실묘사와 거칠게 표현된 부분에서 오는 강조와 배경의 변화는 중심소재를 부각시키고 주목성과 기억도를 높여줄 수 있다.

사물간의 형태와 색채의 공통점을 조합하여 표현하는데 사물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사물을 표현하는데 재료사용의 숙달에 의한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시각적 접근 방법의 새로운 모색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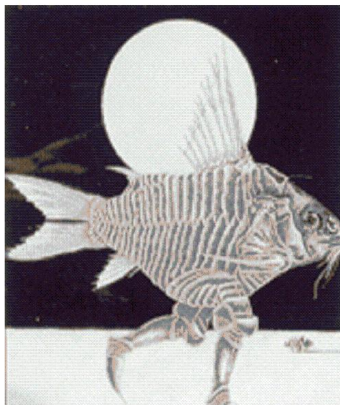
참고 도판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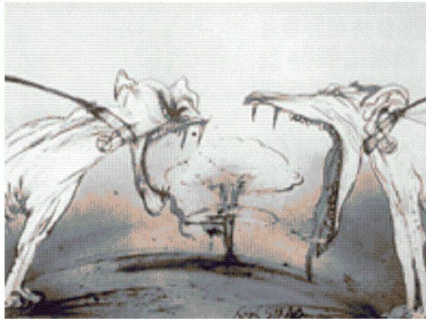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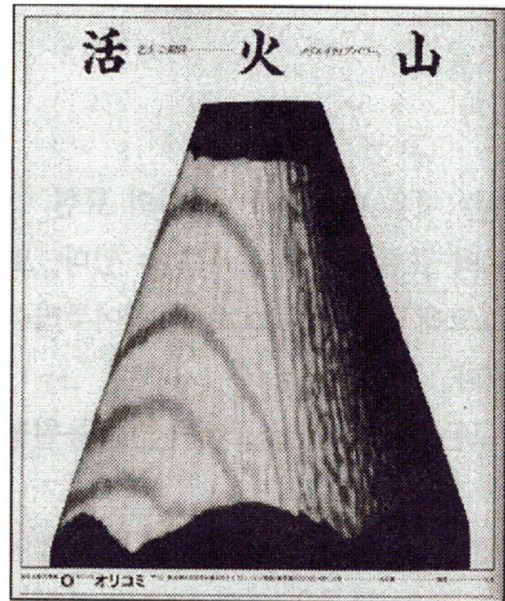
[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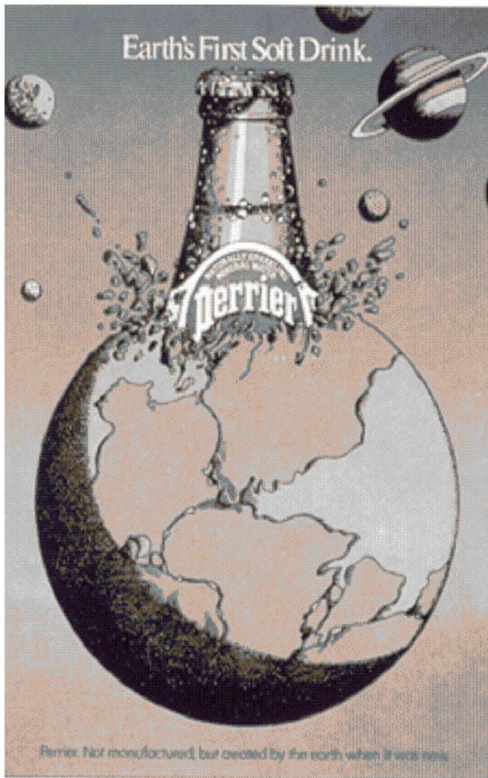
[도 4]



[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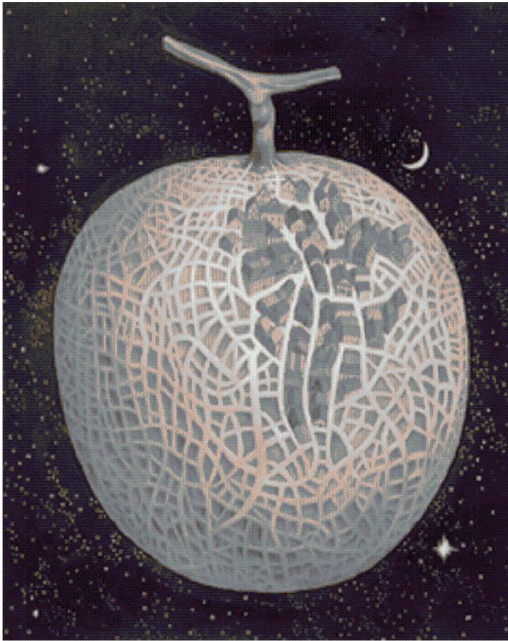
[도 8]



[도 7]



[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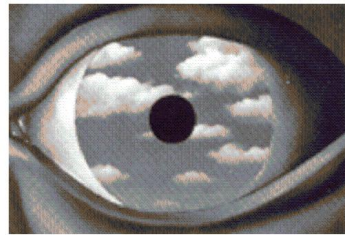
[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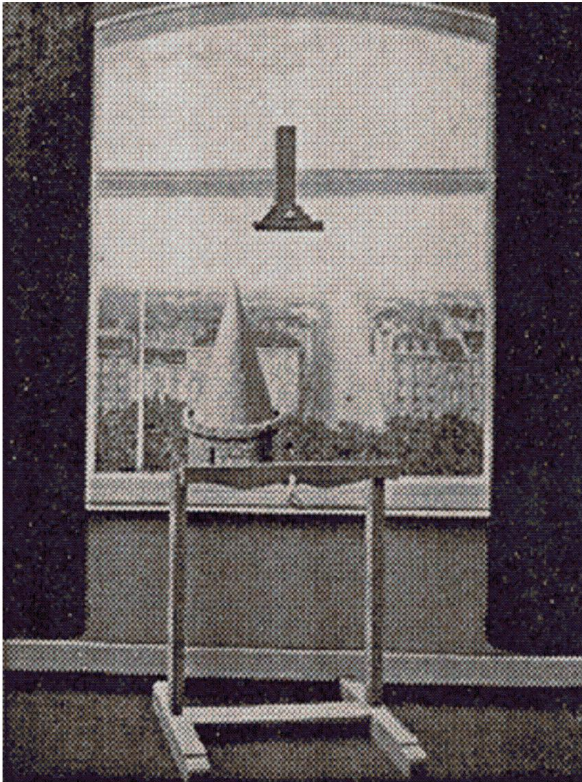
[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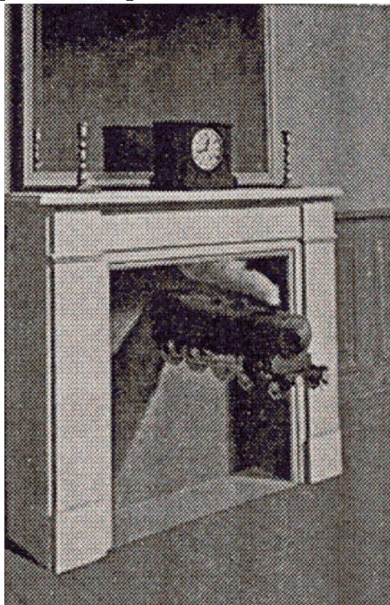
[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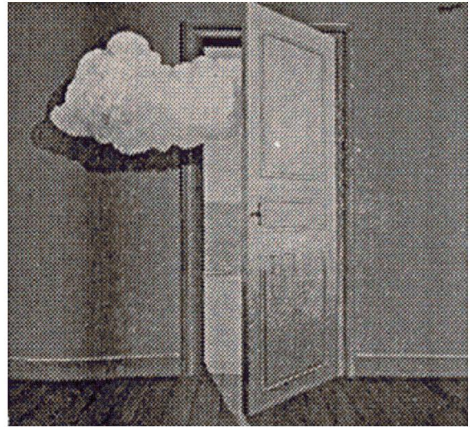
[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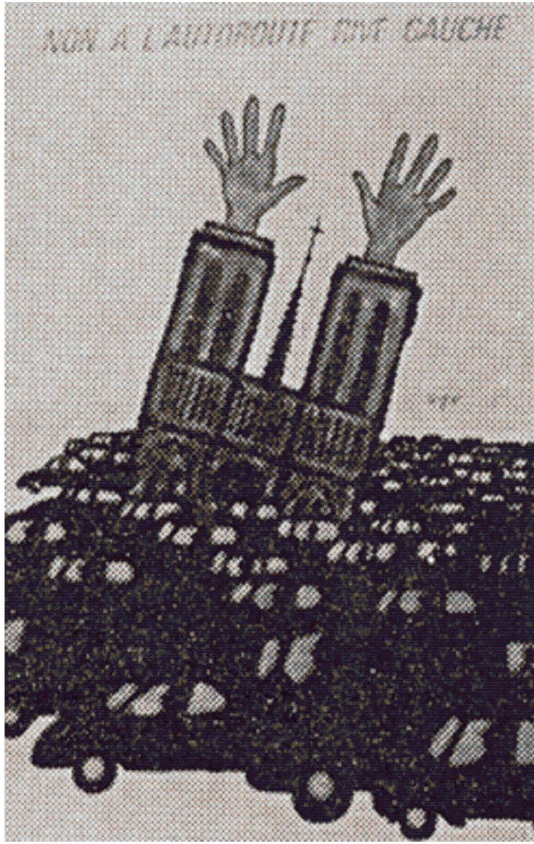
[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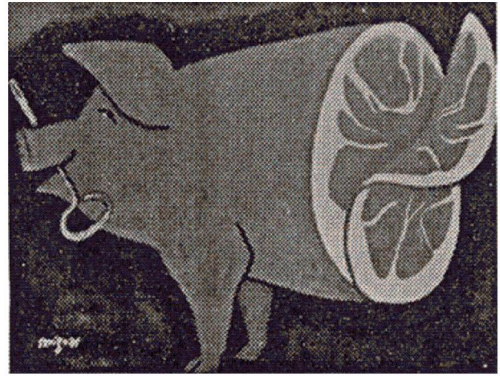
[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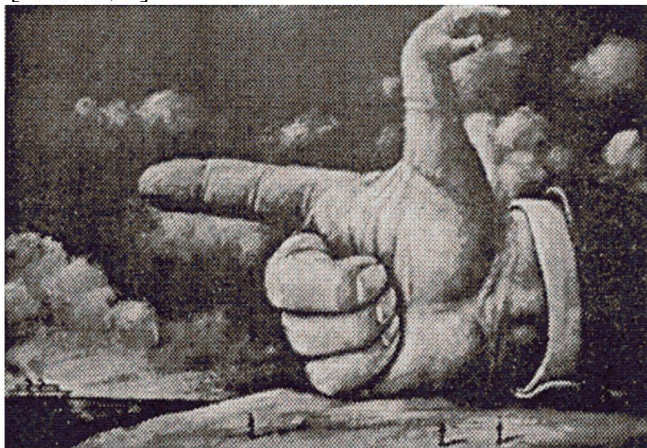
[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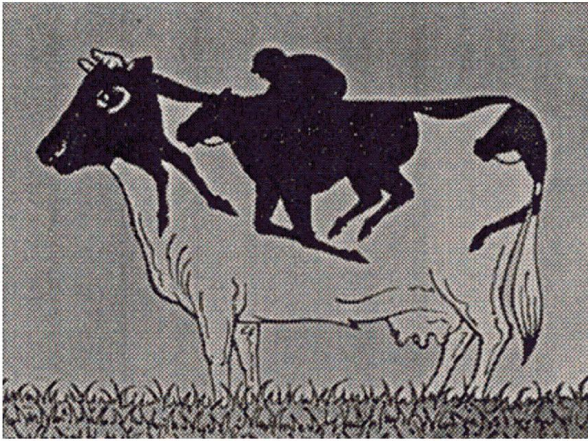
[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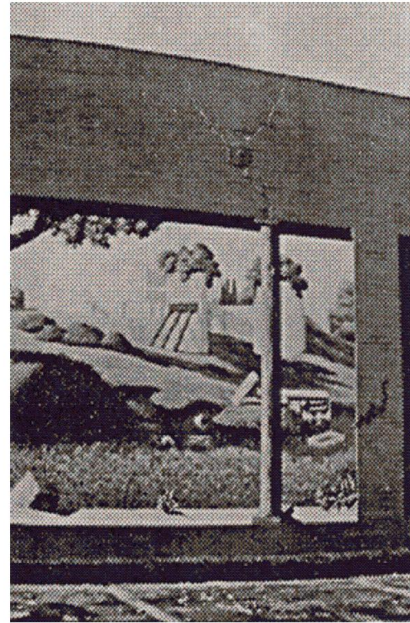
[도 16]



[도 18]



[도 19]



[도 20]



[도 21]



[도 22]

참고 문헌

학위 논문

- 김미화. “시각표현기법에 따른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수자. “사회적 의미의 일러스트레이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김종숙. “日常的 事物에 의한 社會象 表現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명광주. “시각디자인에 있어서 비주얼 스캔들 표현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박인찬. “형태와 색채가 미치는 인간의 심리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양미란. “Illustration에 있어서 Visual Scandal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오경주. “의미 비유적 상징에 의한 시사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오승희. “꽃의 형상을 통한 자아의 내면 표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국내외문헌

-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2000.
- 김태정.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가지』. 서울: 현암사, 1990.
- 김행숙편찬. 『디자인의 용어해설』. 디딤출판사. 1989.
-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10권』. 서울: 동아출판사, 1993.
- 민중서림 편집국.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제5권. 서울: 민중서림, 2001.
- 박선의 · 최호천 지음.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울: 미진사, 1989.
- 스티븐헬러, and 테레사페르난데스 / 이성표 옮김. 『일러스트레이션은 비즈니스다』. 서울: 디자인하우스, 2000.
- 앤드류장.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3.
- 월간미술협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1999.
- 월간 일러스트편집부. 『Illust』. 서울: 월간 일러스트(vol.37), 2002.1.
- 이재운, 『미술사전』. 한국미술연감사, 1989.
- 장완영. " '의미 비유적 상징'에 의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집중" 『일러스트레이션학회 학술지 (vol4)』.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002. 6.
- 피터 톰킨스 & 크리스토퍼 버드 / 황금용 & 황정민 옮김. 『식물의 정신세계』. 서울: 정신세계사, 1996.
- 新井苑子. 『이미지의 여행』. (주)GRAPHIC사, 1982.
- 山田理英, 『일러스트레이션과 이미지 전략』. 김충기(역). 서울: 나남 신서 097, 1991.
- E.B 펠트만. 『미술의 구조적 이해』. 김춘일(역). 서울: 열화당, 1979.
- J.I 페리에. 『20세기 미술』. 김정화(역). 에이피인터내셔널, 1990.

Susanna.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역). 서울: 고려원, 1983.

Yevgeny Basin. 『20세기 예술철학사조』. 오병안 · 윤자성 옮김. 서울
경문사, 1989.

Abstract

Illustration Expression by Semantic Simile and Composition

—Centering on crafting works using flower images—

Kim, Sung-Eun

Dept. of Industrial desig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illustrations are a means of communication in our life. Illustrators use illustrations beyond the simple role as pictures to interact with the public in social space. Such illustration-based communication shows not only individual consciousness, but also mental and creative expressions and social image of the times.

Illustrations have developed into their own genre as they have been influenced by all other genres from cave murals of the primitive times to diversified new formative concepts of arts of modern times. Illustrations are a formative means aimed at communicating through visual characteristics of forms, and thus they as visual messages

essentially undergo unique linguistic interpretation to match forms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To express such illustrations in modern society, natural elements and social elements are matched and likened, and especially natural subject matter, flowers, are frequently used for this purpose. Flowers, as an effective subject matter, are used to trigger human emotions. Thus, the research sought to explore phenomena in modern society and express them into illustrations. Flowers elicit unlimited emotions in human beings. Such emotions' influence varies according to how human beings accept them. Types of influence that human beings can accept are controlled by what experience they have had in life. If one does not have an experience relating to flowers, one has lost the function as the means of accepting expressions of flowers. To help accept such expressions, we can visually express subject matters that we have around us but are not easily conscious of, using their similarities in forms, thus effectively conveying such expressions and simultaneously helping re-memorizing them and eventually maximizing the memory retention effect. The research sought to link the whole forms and partial forms with ordinary media through their similarities and their attributes, and express messages into forms of flowers through similes and composition, thus strengthening visual communications. In visually conveying flowers, the prime expression symbol, the research also sought to use semantic simile and composition geared stimulating interest, enhance implications and attention, and induce visual shocks and illusions through visual scandals and semantic simile symbol, thus strengthening expressive images and creating visual communications.

Also, by coupling negative elements with positive elements, illustrations were drawn in non-sense and illogical forms, and were colored in achromatic colors and chromatic colors, and in contrasting textures. For the expression method, symbolic image colors that can amplify contents were used for background and space treatment. Canvas boards were colored with acrylic colors using various expression methods.

The research used mainly semantic similes and composition based on these expression techniques in crafting illustrations, shed proper images of objects in modern society, induced new emotion-triggering momentums, and thus presented a new direction for illustrations.